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먼연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종종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홀 홀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썩아 - 한종일내 -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澗) 위에 호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날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A]
깊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B]
사람이 부득이 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C]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D]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E]
아는 사람에게만 깊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F]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 낭창하였습니다.

(중략)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세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충만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밤이 아직 셀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질이나 언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낡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옷간에도 만옷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째뚝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테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길는다고 별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패기에 찰라찰라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갈자갈 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 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랭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깨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솔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적끼적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 백석, 「편지」-

* 육보름 : 정월 대보름 다음날.

문학 선지 분석 도구

24. (가),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오늘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아직 셀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문제에서 확인 가능한 논리관계 : 23번 <보기>, 27번 <보기>

선지에서 확인 가능한 논리관계 : 대상과 대상의 의미

(가)

	대상	대상의 의미
①	구월	화자의 <u>고뇌가 심화되는 시간</u> <small>상징이 심화 되는 것</small>
②		
③	어젯밤	화자가 <u>고독감을 느끼는 시간</u> <small>어둠에서 외로움 의미 있음</small>
④	오늘밤	화자가 <u>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림</u> <small>고향은 (다)에서 찾아낸 밤</small>
⑤	인기척 끊긴 한낮	화자가 <u>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u>

(나)

	대상	대상의 의미
①		
②		
③		
④		
⑤		

(다)

	대상	대상의 의미
①		
②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u>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u> <small>상징을 떠올리고 있다.</small>
③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	<u>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u> <small>복덩이 의미하는 밤이제, 고독감은 어니제</small>
④	실비 오는 무더운 밤	글쓴이가 <u>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u> <small>상징을 떠올리고 있다.</small>
⑤	'아직 셀 때가 먼 이 남은 밤	<u>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u> <small>내 시골 워브를 밤의 이야기를 계속한다.</small>

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거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깍임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쭈시고 밖에 나가면 췌든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거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틀을 쭈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잠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데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 있었다.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의 모든 시민은 밖에 나타나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小型)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거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는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거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든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지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 만한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래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래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잇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거드랑의 달걀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쉽지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거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달걀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뺏뺏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 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박위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거드랑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내 거드랑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쪼끄만 날개가 돌아나 있었다. 다른 쪽 거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쿡 웃어 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뱃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굵슬굵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흠.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콧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레닌 : 러시아의 혁명가.

95년 수능, 이상의 날개

- 1인칭 시점의 난해함

수능에 나오기는 힘든 작품!!

문학 선지 분석 도구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 ⑤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오답 선지에서 확인 가능한 논리관계 :

: 대상을 바꿈

	원인	결과
①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

	비교대상	나
②	도적놈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함

	감소 (상황)	없지는 않음 (상황을 제한함)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함	나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음

: 혹은 양적변화와 질적변화

	원인	결과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됨	고민함

: 관찰에서 정한 규칙이지 시민이 정한 규칙이 아니다.

	수단	목적
⑤	혁명가와 간첩을 자신과 비교함	내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함